

최근 다발하는 주요 질병 및 대책



김 태 주 대표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수의학박사

최근 대부분 농장들의 폐사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가지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질병은 주로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의 요소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한 치의 개선이나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돈 구간에서 위축돈이 다발하고 폐사가 늘어나면 무조건 PMWS(?), 육성 비육사에서 호흡기질환이 많아지면 PRDC(?라 하고 나면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다 보니, 모두가 질병 탓이 되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문제는 분만사나 자돈사 등에서 일반 관리상의 차이점을 되새겨 보거나 모돈에서부터 수직감염, 또는 충실한 젖을 흡유 못한 원인 등 그동안 조금씩 느꼈거나 헛점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챙겨봐야 할 것 같다.

또한 대부분의 애깃거리가 소모성질환에 국한되다 보니 때론 식상하기도 하고 의외로 사소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즉, 수직감염에 의해 분만사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가 자돈사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자돈구간에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하고, 분만사에서부터 문제점을 찾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

1. 수직감염에 대한 대책

가. 인공수정

농장에서 사용하는 정액의 질적 성상이나 위생상태, 세균감염 또는

바이러스성 질환 등에 대한 검사나 확인은 필수이다. 사실상 내 농장의 정액 또는 AI센터 별 정도의 차이가 있음직도 하기 때문이다.

나. 모돈의 유질이나 유량문제

MMA 등으로 충분한 초유나 상유 섭취 불량 시 IgG 또는 IgA 등의 면역물질 결핍으로 분만사에서 는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도 이유 후부터 위축 돈은 물론 폐사가 속출할 수 있다.

다. 야간분만 시 보온등 관리

분만사 보온등의 위치는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 친데 반해 야간 분만 시 모돈이 반대편으로 누워 분만할 경우 신생자돈은 저온증으로 초유섭취가 불량하게 되고 이는 곧 면역력의 약화 원인이 될 수 있다.

온도관리가 잘 안되는 농장에서는 퇴근 시 분만 예정돈방에 보온등을 반대편에도 하나 더 켜줄 필요가 있다.

2. 연쇄상구균증

가. 원인 및 전파

① 원인체인 연쇄상구균(*Streptococcus suis*) 은 보통 돈사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돼지의 편 도, 후두 등에도 쉽게 존재 한다.

② 침, 콧물, 유즙, 질 배설물 등을 통해 배설하 면서 보균돈 역할을 한다.

③ 주로 상부 호흡기도나 입을 통해 감염되어 편도선에 침입한다.

④ 간혹 피부상처를 통한 창상감염을 일으키거

나 자돈에서 배꼽을 통한 체외감염이 일어나기도 한다.

⑤ 침입한 연쇄상구균은 혈액내로 들어가 패혈 증을 일으키고 전신으로 퍼져서 관절염, 뇌막염, 심내막염 등을 유발 시킨다.

⑥ 모유를 충분히 먹지 못한 자돈, 모체 이행항 체가 낮은 초산 모돈의 자돈 및 이유, 이동, 합사 등의 스트레스가 가해진 자돈에서 많이 나타난다.

⑦ 이환된 자돈은 통증 때문에 모유 섭취량이 줄어들고 결국 위축돈이 되거나 합병증으로 폐사 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나. 대 책

① 정기적인 내·외부소독을 철저히 한다.
② 분만자돈의 땃줄 처치 시 제대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충분한 모유 급여를 하도록 한다.

④ 이동, 합사 등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한다.

⑤ 치료 초기엔 페니실린제가 유효하지만 신경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엔 예후가 불량하다.

⑥ 골조직 이행농도가 높은 항생제(퀴놀린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소염 제가 유효하다

⑦ 본 병은 혈청형이 다양하지만 일부 백신이 상품화되어 있으며 농장별 혈청형에 따라 자가백 신도 가능하다.

3. 돼지단독

가. 원인 및 전파

① 원인균: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② 분노에 의한 토양 및 바닥 오염에 의해 전파



되고 고온다습한 기후나 축사환경이 호발 조건이다.

③ 침입경로는 편도선, 위장관, 피부 상처 등이

④ 연령에 관계없으나 주로 3~6개월령의 육성돈에 감수성이 높고 특히 사료 내 항생제 사용으로 백신 접종 효과가 감소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일부 백신 누락도 큰 원인에 속할 것 같다.

⑥ 주로 여름철에 발병이 많은 것은 외부온도가 높아 증식과 생존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⑦ 최근 발생 양상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피부형보다는 무증상으로 급사하는 심급성형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후 부검 시 폐조직 등에 이상 병변만 확인하다 보니 돼지단독이 주증상인데도 호흡기질병으로 둔갑할 소지가 많다.

나. 대책

① 백신 : 모든 접종 시 웅돈과 후보돈에도 필히 접종해야 하며 자돈에는 8~9주령 1차, 육성말기 12주령 전후 항체가 소실되는 시기에 2차 접종하면 좋다.

② 치료는 페니실린계와 해열제로 3일 이상 치료하고 설파제는 효과가 없다.

4. 파스튜렐라성 폐렴

가. 원인 및 발생

① *Pasteurella multocida* 로 A 형은 주로 기관지 폐렴, B형은 출혈성 폐혈증, D형은 위축성 비염을 일으킨다.

② 모든 연령에 발생하나 주로 육성, 비육돈에 감수성이 높다.

③ 단독 감염에 의한 원발성 질환과 폐 방어기전이 약화되었을 때 호흡기내에 있던 세균이 증식되어 속발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④ *P. multocida*는 비강내 정상세균총이지만 폐에서 바이러스나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방어기전이 무너질 경우 이차감염 될 수 있다.

⑤ 특히 많은 백신들이 D형 외에 A형 미함유로 파스튜렐라성 폐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 대책

① 유화수소나 암모니아 가스 등의 독성 가스, 바이러스감염 또는 이차 세균감염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폐의 세균 제거기전을 방해하므로 사양관리 개선이 최 우선이다.

② 백신은 A 형까지 포함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농장별 감수성 항생제를 찾아 정기 크리닝을 하되 가급적 음수투약이나 개체별로는 주사 치료토록 한다. 양돈